

보도시점 2026.4.22.(수) 06:00 < 4.22.(수) 석간 > 배포 2026. 4. 22.(수)

복합위기 下 한일 경제통상·투자 협력 방안의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韓한경협 - 日경단련 주최 韓日 신경제협력 세미나 기조연설
- 반도체 부품 기업 투자신고식 및 日 소재·부품·장비 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4월 22일(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은 기조연설을 하였다.

동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겸 종합정책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 입장의 중견국으로서 공조된 노력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자원, AI, 통상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우선, LG전자, SK, 에쓰-오일,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포포키(유통),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윌로그(디지털물류) 등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소비재·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日 유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포토 마스크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Tekscend Photomask社)로부터 첨단 공정 분야에서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신고식을 개최한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부품으로,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는 경기도 이천에서 28-32nm급 포토마스크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용 첨단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제3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일본 유망 투자 기업 5개社(Tekscend Photomask社, JSR社, AGC社, TEL社, AlpsAlpine社)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별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고, 공급망 재편 기조 하,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문경필 (044-203-5691)
		담당자	사무관	이소라 (044-203-5679)
	투자정책국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김정예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044-203-4086)	